지오캐싱북(지오캐싱 응용 및 자연보물찾기 놀이 연계) - 교구재

개발자	오제명, 지하늘, 강경래
지오캐싱(Geocaching)을 응용하여 태안해안의 대표적인 자연물을 관찰하고 그 속에 숨겨진 보물(달걀모양의 보관함)을 찾아 지오캐싱북을 완성한다. 교구재를 이용하여 보물찾기 놀이를 연계함으로서 체험형 자연관찰로 트레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자연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교구재로 활용된다.	
활용대상	유아 ~ 성인
활용시기	사계절
준비물	지오캐싱북, 보물알
소요시간	30분
제작비용	개당 약 1,000원



	
교구재 배부 및 이용방법 설명	자연보물찾기

운영방법

1. 교구재 배부 및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자연관찰로 탐방을 통해 보물의 힌트를 준다.
2. 자연관찰로 탐방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힌트로 보물의 위치를 유추하여 자율탐방을 시작한다.
3. 보물(달걀모양의 보관함)을 찾으면 해당 보물을 지오캐싱북에 부착하여 완성한다.
4. 지오캐싱북을 완성한 참여자에게 해당 보물이 태안해안을 대표하는 자연물임을 다시 한 번 안내하고 마무리한다.

향후방향

– 지오캐싱북의 페이지를 늘려 해당 자연물에 대한 소개와 특징 등을 안내하여 귀가 후에도 자연교육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.

참고내용

– 보물찾기 놀이를 통해 지오캐싱북을 완성하면 태안해안의 대표적인 자연물을 보물로 인식하고 각각의 자연물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다.
– 해당화 : 대표적 사구식물로 5~7월 개화기에 홍자색의 꽃이 핀다. 장미과에 속하여 줄기에는 가시가 있다.
– 모래포집기 : 해안사구의 육성 및 복원을 위한 장치로 모래 이동이 주로 일어나는 지표면에 대나무를 심고 엮어 주변에 모래가 쌓일 수 있도록 설치한다.
– 표범장지뱀 : 멸종위기종 2급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깃대종이다. 몸길이는 7~9cm 등 쪽에 표범무늬의 얼룩반점이 있어 표범장지뱀으로 불리고 있다.
– 해변길 : 총 100km로 1~7코스까지 구성되어 있는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은 해안, 마을길, 샛길, 유류유출오염사고 당시 만들 어지 방제도로 등을 연결하여 만든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이용되고 있다.
– 구름의자 : 해변길 구간 중 4코스 솔모랫길을 트레킹하면 비스듬히 누워 소나무 잎 속에 펼쳐진 하늘과 구름을 감상할 수 있는 구름의자가 있다.
– 태안해안국립공원 : 태안해안국립공원임을 알리는 랜드마크 등은 탐방객들이 찾는 장소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물을 보전해야 하는 장소임을 알게 해준다.

주의사항

– 보물찾기를 위한 자율탐방시 자연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내한다.
– 안전유의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들이 각각의 거점에서 안내 유도를 한다.